

# 아동의 성(性)과 사회정보처리 해석과정이 공격성의 형태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

윤은정 · 정혜영 · 이경화<sup>†</sup>  
(남항초등학교 · 대동대학교 · <sup>†</sup>부경대학교)

## The Influences of Sex and Social Information Interpretation on Children's Aggression

Eun-Jung YOON · Hye-Young JUNG · Kyeong-Hwa LEE<sup>†</sup>  
(Namhang Elementary School · Daedong College · <sup>†</sup>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children's sex and the social information interpretation(intentional/incidental) on aggressions (form/function). The subjects were 363 fifth and sixth graders from 6 elementary schools in Busan and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wo-way ANOVA.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sex had significant influence upon their overt aggression, and children's interpretation of social information had significant influences upon their overt aggression and relational aggression alike. Second, children's sex and interpretation of social information had significant influences upon their proactive aggression and reactive aggression. Finally, children's sex had significant influences upon proactive-overt aggression, reactive-overt aggression and proactive-relational aggression.

*Key words* :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Proactive regression, Reactive regression

### I. 서론

또래 관계는 아동기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다.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사회적 기술을 습득해 나가고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는다. 또래와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사회화 과정의 중요한 요인이자 아동기의 필수적 과업인 것이다(정혜영 · 김지현 · 이경화, 2011). 이러한 아동기 또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공격성을 들 수 있는데,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아동기 공격성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Coie와 Dodge(1998)는 아동기의 공격성은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여러 종단 연구에서도 공격성이 형태만 달라질 뿐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아동기 및 이전의 공격성이 어른이 된 이후의 반사회적 행동이나 공격 행동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496, khlee@pknu.ac.kr

을 예언한다고 이미 보고된 바 있어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Caspi, Elder, & Bem, 1987; Huesmann, Lagerspitz, & Eron, 1984). 또한 아동기의 공격성은 아동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회적 어려움을 예측하는 행동적 요인(Crick, 1996)이며, 반사회적 행동, 범죄, 비행, 폭력 등을 유발하는 공격성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Vaillancourt, Brendgen, Boivin, & Tremblay, 2003), 아동기의 공격적 행동은 초기 성인기까지 안정적으로 발달하며, 청소년기의 학업 중퇴, 또래 거부, 청소년 비행, 성인 범죄와 정신 병리학 등과 관계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Graham, Hudly, & Williams, 1992). 즉 아동기의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공격 행동은 청소년 비행 뿐 아니라 성인 범죄 등 심각한 반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족 내 세대 간의 전이를 통해 이후 세대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공격성에 대한 조기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강명숙, 2007).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아동기 공격성과 관련된 변인으로 아동의 생물학적 요인, 특히 성차(性差)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공격성의 성차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둔 외현적 공격성을 중심으로 남녀 아동 간 성차가 유의미하다고 보고하였다(Ostrov & Keating, 2004). 이에 대해 공격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성차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신체적 수단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또래관계에 해를 입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이나 위협하는 것을 의미하는 관계적 공격성을 포함하면, 남아와 여아에게서 공격성의 성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연령에 따라 그 차이가 다르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Archer, 2004; Bonica, Yeshova, Arnold, Fisher, & Zeljo, 2003; Crick & Grotpeter, 1995). 표현되는 공격성의 형태가 다를 뿐 공격성에는 성차가 없거나 발달시기에 따라 다르다는 관점은 국내의 여러 연

구들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박영신, 2005; 이경희, 1998; 정은정 · 이희영 · 이경화, 2010; Crick & Grotpeter, 1995; Crick, Ostrov, & Werner, 2006).

한편, 공격성 관련 요인 중 성차와 같은 생물학적 요인 외에 사회정보처리 모델(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을 통해 공격성을 설명하려는 관점이 최근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사회정보처리 모델에 따르면, 아동의 사회적 행동은 사회적 단서의 입력, 해석, 목표의 형성, 반응 접근 및 결정 과정을 통한 개인의 인지 과정의 기능에 영향을 받고, 개인 외적인 변인과 상호작용하는 내적 인지 과정인 사회정보처리과정의 각 단계에서 결핍이 일어났을 때 공격 행동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Crick & Dodge, 1996). 이 이론은 개인의 외적 변인과 내적 변인을 함께 고려하며 사회적 상호작용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개인마다 어떻게 지각하고 추론하고 귀인하며, 해결책을 생성하고, 행동으로 결정하는가에 따라 개인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회정보처리과정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Dodge(1986)의 사회정보처리 모형의 각 하위 단계에서의 공격적 집단과 비공격적 집단의 차이를 규명하려고 노력해 왔다(이지현, 2009). 국내의 연구에서도 이은정(1999)은 관계지향적 공격 집단과 외현적 공격 집단 간의 사회정보처리과정의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상황에 따라 공격성 형태가 달라지고 이것은 사회정보처리과정에 차이가 있었음을 보고하며 공격성을 유형화하여 사회정보처리과정과의 관련성을 보는 연구에 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전승희(1999)는 중학생의 비행집단 및 일반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정보처리과정의 각 단계별로 목표지향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오직 해석 단계였음을 밝히며 사회정보처리과정 중 해석 단계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김지현과 박경자(2009)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공격성의 유형과 성에 따라 사회정보처리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그 외 사회정보처리과정과 공격성의 관계를 분석한 국내연구들(서현아 · 지은주, 2001; 윤리라, 1999; 윤정아, 2010; 이지현, 2009; 전선영, 2000; 전승희, 1999; 정세창, 2000; 한준아, 2001)은 대부분 공격 집단과 비공격 집단 간의 사회정보처리과정의 차이를 알아보는, 즉 공격성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사회정보처리과정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차이를 검증하는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근거로 사회적 정보처리의 해석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공격성을 표현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 설정이 가능할 수 있다. 즉 사회정보처리 중 행동의 의도성 유무에 따른 해석과정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공격성의 성차나 사회정보처리 모델에 의해 공격성을 설명한 연구들을 검토함에 있어 공격성의 형태 또는 기능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Little과 Henrich, Jones, Hawley(2003)는 전통적으로 공격성을 한 가지 기준으로만 구분하는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전의 연구들에서 공격성을 반응적, 주도적으로 나누던 기준에 외현적, 관계적 측면을 포함하여 주도-외현적 공격성, 반응-외현적 공격성, 주도-관계적 공격성, 반응-관계적 공격성의 4요인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공격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주로 공격성이 드러나는 형태를 유형화할 때 공격성이 일어나는 원인과 관련한 공격성의 기능 면에서 공격성을 주도적 또는 반응적 공격성으로 나누거나(심지현, 2008; 윤리라, 1999; 전선영, 2000; 전주람, 2008), 공격성이 나타나는 형태에 초점을 두어 공격성을 외현적 또는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김영연, 2008; 김지현, 2009; 김지현 · 박경자, 2006; 이은정, 1999; 이인혜, 2008; 이지현, 2009; 최인숙 · 이강이, 2010; 현지은, 2010).

그러나 관계적-외현적 공격성, 주도적-반응적

공격성이라는 2차원(형태 및 기능)의 4요인 공격성을 모두 고려한 연구가 드문 상황으로, 국내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분노와 타인의 인정 등의 변인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한영경(2008)의 연구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지적, 정서적 특성이 공격성 4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본 이홍과 김은정(2012)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특히, 공격성의 관련변인으로서 성과 사회정보처리과정을 탐색하는 연구들에서 공격성의 의미에 그 형태와 기능을 함께 포함하여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애동안 지속되는 공격성의 특성상 조기개입이 필요한 아동기를 대상으로, 공격성 연구에서 생물학적인 접근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인정받는 성과 심리학적으로 가장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는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유형에 따라서 공격성의 형태와 기능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공격성의 형태와 기능을 함께 고려한 4요인 공격성에 대해서도 아동의 성과 사회정보처리 해석유형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공격성의 형태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을 밝힘으로써, 아동기 공격성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데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 및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에 따라 아동의 공격성 형태(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성 및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에 따라 아동의 공격성 기능(주도적 공격성, 반응적 공격성)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동의 성 및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에 따라 아동의 4요인 공격성(주도-외현적 공격성, 반응-외현적 공격성, 주도-관계적 공격성, 반응-관계적 공격성)에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지정한 급지(가, 나, 다, 라)와 학급 인원수를 고려하여 6개 초등학교를 임의 선정하였다. 그리고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으며, 사회적 정보처리 및 공격적 행동의 패턴이 안정화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즉 5학년과 6학년 학생을 표집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검사지 총 372부 중 응답이 누락되어 있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일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는 363부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의 성별은 남학생이 52.1%(189명), 여학생이 47.9%(174명)이었으며, 학년은 5학년이 44.6%(162명), 6학년이 55.4%(201명)이었다.

자료수집에 앞서 5학년 24명을 대상으로 공격성 검사와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 소요시간과 검사 실시 상의 문제 여부를 검토하였다. 예비검사 결과, 검사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총 시간은 20분 내외로 나타나 초등학교 학생에게 검사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부 문항은 초등학교생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한 후(예. 공격성의 33번 문항에서 '해코지'라는 단어를 '괴롭힘'으로 수정),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 2. 연구 도구

#### 1) 공격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Marsee, Kimonis와 Frick(2004)이 제작한 자기-보고형 척도(PCS: Peer Conflict Scale)를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교육심리 전공 교수의 검토 및 예비검사를 거쳐 사용하였다. PCS는 주도적이거나 반응적으로 나타나는 공격성의 기능과 외현적, 관계적으로 나타나는 공격성의 형태를 모두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척도로서, 4점 리커트형의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Marsee와 Frick(2007)의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가 주도-외현적 공격성 .82, 반응-외현적 공격성 .87, 주도-관계적 공격성 .76, 반응-관계적 공격성 .80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주도-외현적 공격성(10개 문항) .78, 반응-외현적 공격성(10개 문항) .82, 주도-관계적 공격성(10개 문항) .69, 반응-관계적 공격성(10개 문항) .74로 나타났다.

#### 2)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정보처리과정 중 해석단계를 측정하기 위해 Crick(1995), Crick과 Dodge(1996), Fitzgerald와 Asher(1987)가 개발하여 사용한 가설적인 상황 도구 중 해석 단계를 번역하여 교육심리 전공 교수의 검토와 예비검사를 거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정보처리의 해석을 위해 사용한 도구는 8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이야기마다 의도를 측정하여 귀인을 검사하는 2가지의 문항과 이야기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정도를 골라 답하는 1가지 문항의 총 3개 문항이 각각 제시된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정보처리과정 중 해석 단계에서 의도적 귀인 성향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극 제공자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파악할수록, 의도를 고의적으로 파악할수록, 벌어진 상황의 결과에 대해 부정적 정서를 보일수록 사회 정보처리 과정에서 입력된 단서를 의도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도를 묻는 16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3, 정서 표현을 묻는 8개 문항은 .72로 나타났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4.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측정도구에 대해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산출하고, 사회정보

처리과정의 해석유형은 총점의 표준점수(z 점수)를 구한 후, 평균(1.00)을 중심으로 두 집단(의도 집단, 비의도집단)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성 및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에 따른 공격성의 형태 및 기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2-way ANOVA)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아동의 성 및 해석이 아동의 공격성 형태에 미치는 영향

먼저, 아동의 성 및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 유형에 따른 아동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 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외현적 공격성의 평균치는 남아(M=27.23, SD=6.81)가 여아(M=23.57, SD=3.66)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의도적 해석집단(M=26.34, SD= 6.05)이 비의도적 해석집단(M=24.53, SD=5.41)보다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 단계에서 자극 제공자의 행위를 고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높은 아동이 외현적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관계적 공격성은 남아(M=25.90, SD=5.35)가 여아(M=25.12, SD=4.39)보다 평균치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의도적 해석집단(M=26.63, SD=5.41)이 비의도적 해석집단(M=24.30, SD=3.99)에 비해 평균치가 높았다.

<표 1>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 점수분포

형태	성	해석집단(n)	M	SD
외현적 공격성	남	비의도적(84)	26.11	6.41
		의도적(105)	28.13	7.01
	여	전체(189)	27.23	6.81
		비의도적(89)	23.04	3.72
	아	의도적(85)	24.13	3.53
		전체(174)	23.57	3.66
관계적 공격성	남	비의도적(173)	24.53	5.41
		의도적(190)	26.34	6.05
	여	전체(363)	25.48	5.82
		비의도적(84)	24.43	4.35
	아	의도적(105)	27.08	5.78
		전체(189)	25.90	5.35
외현적 공격성	남	비의도적(89)	24.18	3.64
		의도적(85)	26.08	4.90
	여	전체(174)	25.12	4.39
		비의도적(173)	24.30	3.99
	아	의도적(190)	26.63	5.41
		전체(363)	25.52	4.92

외현적 공격성과 마찬가지로 남아가 그리고 사회 정보처리에 있어 의도적 해석을 하는 아동이 여아나 비의도적 해석을 하는 아동보다 관계적 공격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성과 해석에 따른 아동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듯이, 아동의 성은 외현적 공격성에 매우 유의미한 주효과를 가지며(F=37.37, p<.001), 해석유형 또한 아동의 외현적 공격성

<표 2> 성 및 해석에 따른 공격성 형태의 차이분석

종속변수	Source	Type III SS	df	MS	F
외현적 공격성	수정모형	1455.029a	3	485.01	16.13
	절편	231491.02	1	231491.0	7698.09
	성	1123.81	1	1123.81	37.37***
	해석	217.79	1	217.79	7.24**
	성 × 해석	19.96	1	19.96	.66
	수정모형	538.800a	3	179.60	7.83
관계적 공격성	절편	232442.40	1	232442.4	10128.98
	성	34.54	1	34.54	1.51
	해석	464.25	1	464.25	20.23***
	성 × 해석	12.53	1	12.53	.55

\*\* p<.01, \*\*\* p<.001

에 유의미한 주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 $F=7.24, p<.01$ ), 성과 해석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의 해석유형이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 유의미한 주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F=20.23, p<.001$ ), 아동의 성은 관계적 공격성에 주는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성과 해석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계적 공격성은 아동의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만, 아동의 성에 의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2. 아동의 성 및 해석이 아동의 공격성 기능에 미치는 영향

먼저, 아동의 성 및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 유형에 따른 아동의 주도적, 반응적 공격성 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주도적 공격성은 남아( $M=25.21, SD=5.54$ )가 여아( $M=22.94, SD=2.94$ )보다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의도적 해석집단( $M=24.87, SD=4.98$ )이 비의도적 해석집단( $M=23.30, SD=4.06$ )에 비해 평균치가 높았다. 반응적 공격성은 남아( $M=27.92, SD=6.59$ )가 여아( $M=25.72, SD=4.81$ )보다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의도적 해석집단( $M=28.11, SD=6.34$ )이 비의도적 해석집단( $M=25.51, SD=5.05$ )에 비해

<표 3> 주도적, 반응적 공격성 점수분포

기능	성	해석집단(n)	M	SD
주도적 공격성	남아	비의도적(84)	24.20	5.09
		의도적(105)	26.02	5.78
		전체(189)	25.21	5.54
	여아	비의도적(89)	22.45	2.50
		의도적(85)	23.45	3.28
		전체(174)	22.94	2.94
반응적 공격성	남아	비의도적(173)	23.30	4.06
		의도적(190)	24.87	4.98
		전체(363)	24.12	4.63
	여아	비의도적(84)	26.33	5.59
		의도적(105)	19.19	7.06
		전체(189)	27.92	6.59
반응적 공격성	남아	비의도적(89)	24.72	4.35
		의도적(85)	26.76	5.05
		전체(174)	25.72	4.81
	여아	비의도적(173)	25.51	5.05
		의도적(190)	28.11	6.34
		전체(363)	26.87	5.90

평균치가 높았다. 주도적, 반응적 공격성은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과 마찬가지로 남아가 그리고 사회정보처리에 있어 의도적 해석을 하는 아동이 여아나 비의도적 해석을 하는 아동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성과 해석에 따른 아동의 주도적, 반응적 공격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듯이, 아동의 성은 주도적 공격

<표 4> 성 및 해석에 따른 공격성 기능의 차이분석

종속변수	Source	Type III SS	df	MS	F
주도적 공격성	수정모형	666.111a	3	222.04	11.29
	절편	207940.92	1	207940.9	10569.94
	성	421.01	1	421.01	21.40***
	해석	178.27	1	178.27	9.06**
	성 × 해석	15.10	1	15.10	.77
반응적 공격성	수정모형	998.849a	3	332.95	10.30
	절편	256973.52	1	256973.5	7949.89
	성	366.89	1	366.89	11.35**
	해석	540.17	1	540.17	16.71***
	성 × 해석	14.67	1	14.67	.45

\*\*  $p<.01$ , \*\*\*  $p<.001$

성에 대해 유의미한 주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21.40, p<.001$ ), 해석유형도 유의미한 주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9.06, p<.01$ ). 즉 아동의 주도적 공격성은 아동의 성과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의 성은 반응적 공격성에 대해 유의미한 주효과가 나타났고( $F=11.35, p<.01$ ), 해석유형 또한 유의미한 주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16.71, p<.001$ ). 주도적 공격성과 마찬가지로 반응적 공격성도 아동의 성과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아동의 성 및 해석이 아동의 4요인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성 및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에 따라 나타나는 아동의 주도-외현적 공격성, 반응-외현적 공격성, 주도-관계적 공격성, 반응-관계적 공격성의 점수 분포는 <표 5>와 같다.

아동의 성을 기준으로 볼 때, 주도-외현적 공격성에서는 남아( $M=12.54, SD=3.28$ )가 여아( $M=10.95, SD=1.35$ )보다 공격성의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고, 반응-외현적 공격성에서도 남아( $M=14.69, SD=4.16$ )가 여아( $M=12.22, SD=2.73$ )보다 공격성의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다. 주도-관계적 공격성에서도 역시 남아( $M=12.67, SD=2.64$ )가 여아( $M=11.99, SD=1.93$ )보다 높은 공격성 점수를 보였다. 반응-관계적 공격성에서는 남아( $M=13.23, SD=3.06$ )가 여아( $M=13.12, SD=2.70$ )에 비해 공격성의 점수가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도-외현적 공격성이나 반응-외현적 공격성, 그리고 주도-관계적 공격성에 비해서는 평균치의 성차가 크지 않았다. 그리고 해석유형에 따라서는 의도적 해석집단이 비의도적 해석집단에 비해 모든 공격성 점수에서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다. 즉 성별로는 남아가 그리고 해석유형으로는 의도적 해석집단이 4요인 공격성의 성향이 높은 것을 알

<표 5> 4요인 공격성의 점수 분포

공격성	성	해석집단(n)	M	SD
주도-외현적 공격성	남아	비의도적(84)	12.18	3.27
		의도적(105)	12.83	3.18
		전체(189)	12.54	3.28
	여아	비의도적(89)	10.82	1.29
		의도적(85)	11.08	1.40
		전체(174)	10.95	1.35
전체	비의도적(173)	11.48	2.54	
	의도적(190)	12.05	2.68	
	전체(363)	11.78	2.63	
반응-외현적 공격성	남아	비의도적(84)	13.93	3.65
		의도적(105)	15.30	4.45
		전체(189)	14.69	4.16
	여아	비의도적(89)	12.22	2.77
		의도적(85)	13.05	2.63
		전체(174)	12.22	2.73
전체	비의도적(173)	13.05	3.33	
	의도적(190)	14.29	3.90	
	전체(363)	13.70	3.69	
주도-관계적 공격성	남아	비의도적(84)	12.02	2.13
		의도적(105)	13.19	2.89
		전체(189)	12.67	2.64
	여아	비의도적(89)	11.63	1.67
		의도적(85)	12.36	2.11
		전체(174)	11.99	1.93
전체	비의도적(173)	11.82	1.92	
	의도적(190)	12.82	2.60	
	전체(363)	12.34	2.35	
반응-관계적 공격성	남아	비의도적(84)	12.41	2.54
		의도적(105)	13.89	3.28
		전체(189)	13.23	3.06
	여아	비의도적(89)	12.53	2.20
		의도적(85)	13.72	3.03
		전체(174)	13.12	2.70
전체	비의도적(173)	12.47	2.36	
	의도적(190)	13.81	3.16	
	전체(363)	13.17	2.89	

수 있다.

아동의 성과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에 따른 아동의 4요인 공격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듯이, 아동의 성은 주도-외현적 공격성에 주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F= 34.66, p<.001$ ), 해석유형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과 해석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표 6> 성 및 해석에 따른 4요인 공격성의 차이분석

종속변수	Source	Type III SS	df	MS	F
주도-외현적 공격성	수정모형	252.143a	3	84.05	13.43
	절편	49528.70	1	49528.70	7913.89
	성	216.94	1	216.94	34.66***
	해석	18.73	1	18.73	2.99
	성 × 해석	3.39	1	3.39	.54
반응-외현적 공격성	수정모형	504.731a	3	168.24	13.67
	절편	66866.05	1	66866.05	5432.04
	성	353.23	1	353.23	28.70***
	해석	108.79	1	108.79	8.84**
	성 × 해석	6.90	1	6.90	.56
주도-관계적 공격성	수정모형	129.355a	3	43.12	8.29
	절편	54501.22	1	54501.22	10482.12
	성	33.52	1	33.52	6.45*
	해석	81.44	1	81.44	15.66***
	성 × 해석	4.18	1	4.18	.81
반응-관계적 공격성	수정모형	164.048a	3	54.68	6.88
	절편	61958.61	1	61958.61	7793.84
	성	.03	1	.00	.00
	해석	159.34	1	159.34	20.04***
	성 × 해석	1.99	1	1.99	.25

\* p<.05, \*\* p<.01, \*\*\* p<.001

유의하지 않아, 주도-외현적 공격성에 대해서는 성이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의 반응-외현적 공격성에서는 성(F=28.70, p<.001)과 해석유형(F=8.84, p<.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반응적으로 이루어지는 외현적 공격성에 있어 아동의 성은 영향력이 있는 공통적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주도-관계적 공격성에 있어서도 아동의 해석유형은 유의미한 주효과를 가지고 있으며(F=15.66, p<.001), 성 또한 그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F=6.45, p<.05). 반응-관계적 공격성의 경우, 아동의 성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았으며, 해석유형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F=20.04, p<.001). 즉 주도적 또는 반응적으로 나타나는 관계적 공격성에 있어서는 해석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 IV. 논 의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과 사회정보처리의 해석유형에 따라 공격성 형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성은 외현적 공격성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에 비해, 아동의 해석유형은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아의 외현적 공격성이 그리고 의도적 해석집단의 외현 및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는 주로 신체적인 우세나 도구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외현적 공격성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이경희, 1998; Harris, 1992; Maccoby & Jacklin, 1974; Owens, 1995)을 지지하며, 외현적 공격성은 남아가 더 높고 관계적 공격성에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박서연, 2008; 박영신, 2005)와 일치하는 것이라 하겠다.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유형이 아동의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된 본 연구결과는 비공격집단에 비해서 공격집단이 사회정보처리과정에서 의도적 해석을 하는 경향이 높음을 보고한 한준아(2001), 이은정(1999), Crick 과 Dodge(1996)의 연구와 유아의 관계적 공격행동과 외현적 공격행동에 대해 귀인 오류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힌 박서연(2008)의 연구결과와도 상통한다. 이렇게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거나 일치함을 고려해 볼 때, 아동의 적 성과 사회정보처리의 해석과정은 아동의 공격성 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다.

둘째, 아동의 성과 사회정보처리의 해석유형에 따라 공격성 기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도적으로 또는 반응적으로 나타나는 공격성에 대해 아동의 성과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해석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즉 성과 사회정보의 해석유형에 의해 주도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이거나 혹은 반응적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 모두 영향을 받으며, 특히 남아가 그리고 의도적 해석집단이 주도적, 반응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도적, 반응적 공격성이 높은 아동과 비공격적 아동 간에는 사회정보처리의 해석 단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전선영, 2000), 반응적 공격성과 비반응적 공격성 집단에서 해석차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한 선행연구(윤리라, 1999)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한편, 반응적 공격성 집단이 비반응적 공격성 집단보다 해석 단계에서의 오류가 더 많음을 보고한 연구(전승희, 1999)의 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일부 선행연구 결과와의 불일치를 고려해 볼 때, 공격성의 기능에 미치는 아동의 성 및 사회정보처리의 해석과정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후속적 검증이

요구된다.

셋째, 아동의 성과 사회정보처리의 해석유형에 따라 4요인 공격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외현적 공격성은 주도나 반응의 기능과 관계 없이 아동의 성이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반응-외현적 공격성에 대해서는 해석유형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에는 주도나 반응의 기능과 관계 없이 아동의 해석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으며, 주도-관계적 공격성에 대해서는 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정보처리과정 각 단계의 결핍이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곽금주, 1992; 박서연, 2008; 서현아, 지은주, 2001; 안지영, 1992; 양은주, 1985; 이은정, 1999; 임승렬, 1996; 임연진, 이은해, 2000; 전승희, 1999; 정세창, 2000; 한준아, 2001; Crick & Dodge, 1996)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아동의 공격성을 4요인으로 구분하여 접근한 연구가 많지 않고, 특히 사회정보처리의 과정과 관련지어 분석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후속적 연구를 통한 비교와 검증이 요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공격성 형태 및 기능에 미치는 성이나 사회정보처리의 해석유형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은 공격성의 예방 및 조기 중재의 관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공격성의 형태와 기능 요인에 따라 관련 변인도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의 공격성의 특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공격적 아동 및 피해아동에 대한 인지-행동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지하는 한편(권효진, 강영심, 김재은, 2008; 서은정, 2010; Orobio de Castro, Merk, Koops, Veermmann, & Bosch, 2005), 공격성 문제의 예방 및 중재를 위해 아동이 표출하는 공격성의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그러한 공격성이 주도적으로 나타나는지 반응적으로 나타나는

지에 따라 중재가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반응-외현적 공격성이나 주도-관계적 공격성 및 반응-관계적 공격성에 대해 사회정보처리의 해석유형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향이 높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훈련시킴으로써 공격행동의 감소와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보처리 과정의 해석 단계에 초점을 두어 자료를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후속적으로는 아동의 사회정보처리 과정의 반응과 결정 단계를 포함하여 공격성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을 사용하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식되는 내용으로 응답하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적으로는 측정의 신뢰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강명숙(2007). 아동의 공격성에 관련된 위험요인 및 예방, 처치 프로그램 고찰, 아동교육 16(3), 57~68.

곽금주(1992). 공격영화시청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과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효진·강영심·김재은(2008). 인지행동적 집단상담이 집단따돌림 피해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기술에 미치는 효과, 수산해양교육연구 20(1), 46~57.

김영연(2008). 영아와 유아의 공격과 관련 변인들의 관계: 영아와 유아의 정서조절과 사회적 기술 및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현(2009). 아동의 성과 공격성 유형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지능과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 아동학회지 30(6), 489~504.

김지현·박경자(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

식 모형 검증, 아동학회지 27(3), 149~168.

김지현·박경자(2009). 아동의 성과 공격성 유형에 따른 사회정보처리과정: 해석단계와 반응결정단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7(1), 105~113.

박서연(2008).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귀인오류가 아동의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신(2005). 아동의 공격성 유형과 학교 적응의 관계,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은정(2010). 정서·행동장애아의 행동문제 중재 중심 국내연구 동향, 수산해양교육연구 22(4), 647~664.

서현아·지은주(2001). 사회정보처리모형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유아와 비공격적인 유아의 사회인지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논총 10, 27~45.

심지현(2008). 문학치료를 통한 빈곤아동의 공격성 해소: 아동상담센터의 5, 6학년을 대상으로,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지영(1992). 아동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 사회정보처리모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은주(1985). 상대방의 공격적인 의도가 모호한 상황 하에서의 아동의 공격행동,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리라(1999). 공격성의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및 사회정보처리 특성. 반응적 공격성과 비반응적 공격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정아(2010). 아동의 자기존중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경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희(1998). 관계지향 공격성 및 외현화 공격성과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정(1999). 관계지향적 공격집단과 외현적 공격집단 간의 사회정보처리 과정상의 차이,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인혜(2008).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 정서조절 능력, 공격성 간의 경로분석,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현(2009).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사회정보처리과정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홍·김은정(2012). 청소년의 공격성 하위 유형

- 에 따른 인지 및 정서 특성, 청소년학 연구 19(1), 227~250.
- 임승렬(1996). 아동 공격성의 귀인과정 연구, 덕성여대논문집 27, 433~452.
- 임연진 · 이은혜(2000).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정보처리 능력과 사회적 행동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38(1), 9~23.
- 전선영(2000). 반응적 및 주도적 공격성 아동의 사회정보처리와 행동 특징, 아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승희(1999). 청소년의 공격성 유형에 따른 사회정보처리 과정상의 특성,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주람(2008). 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모애착 및 공격성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세창(2000). 아동의 공격성과 불안이 사회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정 · 이희영 · 이경화(2010). 산새반 유아들의 관계적 공격전략 분석, 아동학회지 31(3), 183~198.
- 정혜영 · 김지현 · 이경화(2011). 갈등해결전략과 정서기능에 의한 아동의 또래지위 판별, 수산해양교육연구 23(2), 290~301.
- 최인숙, 이강이(2010).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와 정서요인이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6), 15~34.
- 한영경(2008).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 아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준아(2001). 사회적 정보처리과정에 있어 공격적 아동과 친사회적 아동의 차이,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지은(2010). 남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사회 불안,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cher, J. (2004).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in real-world setting: A meta-analytic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8, 291~322.
- Bonica, C., Yeshova, K., Arnold, D. H., Fisher, P. H., & Zeljo, A. (2003). Relational aggression and language development in preschoolers, *Social Development*, 12, 551~562.
- Caspi, A., Elder, G. H., Jr., & Bem, D. J. (1987). Moving against the world: Life course patterns of explosiv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3, 308~313.
- Coie, J. D., & Dodge, K. A. (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W. Damon (Series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779~862, New York: John Wiley.
- Crick, N. R. & Dodge, K. A. (1996).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echanism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7, 993~1002.
- Crick, N. R. (1995). Relational aggression: The role of intent attributions, feelings of distress, and provocation typ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313~322.
- Cr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rick, N. R., Ostrov, J. M., & Werner, N. E. (2006). A longitudinal study of relational aggression, physical aggression, and children's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 131~142.
- Dodge, K. A. (1986). 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In M. Permuter (Ed.),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Cognitive perspectives on children's social and behavioral development*, 77~125, Hillsdale, NJ: Erlbaum.
- Fitzgerald, P., & Asher, S. R. (1987). Aggressive-rejected children's attributional biases about liked and disliked pee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York.
- Graham, S., & Hudley, C., & Williams, E. (1992). Attributional and emotional determinants of aggression among African-American and Latino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731~742.
- Harris, M. (1992). Language experience and early language development: From input to

- uptake, Hove, England: Erlbaum
- Huesmann, L. R., Lagerspetz, K., & Eron, L. D. (1984). Interventioning variables in the television violence-aggression relation : Evidence from two countr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746~775.
- Little, T. D., Henrich, C. C., Jones, S. M., & Hawley, P. H. (2003). Disentangling the "whys" from the "whats" of aggressive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2), 122~133.
- Maccoby, E. E., & Jacklin, C. 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rsee, M. A., & Frick, P. J. (2007). Exploring the cognitive and emotional correlates to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a sample of detained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6), 969~981.
- Marsee, M. A., Kimonis, E. R., & Frick, P. J. (2004). Peer conflict scale Unpublished rating scale, University of New Orleans.
- Orobio de Castro, B., Merk, W., Koops, W., Veermman, J., & Bosch, J. (2005). Emotions in sip and their relations with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referred aggressive boy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4, 10~116.
- Ostrov, J. M., & Keating, C. F. (2004). Gender differences in preschool aggression during free play and structured interactions: An observational study, *Social Development*, 13, 255~277.
- Owens, L. D. (1995). Aggression in school: gender and developmental & differenc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ustralian Guidance and Counseling Association (5th. Hobart, Tasmania, September, 27~30).
- Vaillancourt, T. , Brendgen, M. , Boivin, M. , Tremblay, R. E. (2003). A Longitudinal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Indirect and Physical Aggression: Evidence of Two Factors Over Time? *Child development*, 74(6), 1628 ~1638.
- 
- 논문접수일 : 2012년 05월 20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2년 06월 04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06월 07일